



### 알리는 말씀

1. 조이우간다 특수교육 통합학교 프로젝트에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선교회 홈페이지 조이우간다(joycenter.com/joy-uganda)편을 참고해 주세요
2. 특히 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태의 선교사 지망생도 원합니다.

### 장애관련 소식

1.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복용이 자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기해 온 우려와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기존에 발표된 43편의 연구를 종합 분석해 임신 중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의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보고된 발달장애와의 연관성은 약물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 유전적 요인, 산모의 발열, 기존 통증이나 질환 등 다른 모성 요인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우간다 대통령 선거와 장애선교의 자리

지난 1월 15일 치러진 우간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현직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다시 한 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7선). 정권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질서는 유지되었지만, 이번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의 형식과 실제 사이의 깊은 간극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선거 전후로 이어진 인터넷 차단, 야권과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 표현과 참여의 자유 제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적 절차는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정권 유지를 위한 통제와 권력 집중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 집권 속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민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 장애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은 장애인 가정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도과 정책이 권력 유지에 우선될수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공공 복지의 가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 가정의 고립과 빈곤은 더욱 구조화되는 위험속에 있습니다. 조이우간다는 정권의 변화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장애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외피, 인권 탄압과 부패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잊힌 이웃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간다의 시대적 어둠 한가운데서, 조이우간다는 작은 빛으로 남아 존엄을 말하고, 동행을 선택하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 기도제목나눔



1. 조이 우간다 특수교육 학교 건립을 위해/ 직업학교 증설을 위해
2. 교사 및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위해
3. 조이케냐 음악치료 교실을 위해
4. 자원 총당과 후원자를 위해

## 후원방법

1. Check로 보내실 경우:  
Pay to the order of "Joy Center, Inc.". Memo: \_\_\_\_\_
2. Zelle, Paypal, Venmo의 경우:  
ID: joycenter@hotmail.com
3. 홈페이지 온라인 기부  
[www.joycenter.com](http://www.joycenter.com)

We appreciate your gift of love in support of Joy Center,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 「버려진 인간성」-홀로코스트의 희생자 장애인



다큐멘터리 영화 [버려진 인간성](Disposable Humanity)의 감독 미첼 (Cameron S. Mitchell)은 장애인을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먼저 살해되었지만, 가장 마지막에 기억된 희생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나치 독일의 Aktion T4 프로그램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나치는 1939년,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기 약 2년 전부터 정신적·신경학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살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규정하고, 최초의 가스실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으로 약 30만 명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4 프로그램은 이후 홀로코스트의 대량학살 시스템을 준비하는 실험장이 되었지만, 홀로코스트 교육과 기억의 역사 속에서는 오랫동안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베를린 도심에 T4 희생자를 위한 공식 기념비가 세워진 것도 2011년이 되어서였으며, 이는 장애인이 가장 마지막에 공적 기억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생존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후손과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라질 뻔한 역사를 복원합니다. 또한 선전과 미디어가 어떻게 장애인을 사회의 위협으로 낙인찍고 비인간화했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과정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감독 미첼은 “장애인은 파시즘 체제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라며,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Disposable Humanity>는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영화가 아니라, 역사를 잊을 때 어떤 비극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장애인을 기억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